

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	튼튼한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
	배포일시	2023. 5. 3(수) / 총3매(본문2매)	
담당부서 전략사업부	담당자	• 총괄본부장 김성완, 부장 백재환 • ☎ (02) 6103-9215	
보도일시	2023년 5월 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
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-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자율주행 시대 교통안전 대비 업무협약”

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-치안정책연구소 업무협약
 - Lv3 이상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분석 협업 등 교통 안전 확보 노력
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원장 주현종, 이하 ‘자배원’)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(소장 최종상)는 5월 3일(수) 자율주행시대 교통안전 확보를 대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- 양 기관은 Lv.3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등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 및 표준을 발굴하고 자율주행 시대 교통안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.
-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축적된 연구개발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 등 급변하는 신 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협약에 따라, 양 기관은 △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및 예상 유형 연구 △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방법 표준화 △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교육 지원 △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정보 수집·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조사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.

- 치안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유일의 치안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교통시스템, 사이버보안, 교통사고 등 자율주행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, 지난해 9월 경찰청 '미래비전 2050' 발표를 기점으로 치안정책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치안과학기술의 직접개발 및 현장 접목을 위하여 '국립 치안 과학원'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.
 -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은 “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치안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.” 고 말했다.
 - 자배원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연구와 자동차 공제조합*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'23년부터는 뺑소니, 무보험차,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- * 6개 자동차 공제조합(법인택시, 화물자동차, 버스, 개인택시, 전세버스, 렌터카)
- 주현중 자배원 원장은 “자배원의 자동차 공제조합 관리·감독을 통해 쌓은 교통사고 대응 노하우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시너지를 내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교통안전의 표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.” 면서 “사업용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양 기관의 업무 성과를 선제적으로 접목하여 자율주행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,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.” 고 말했다.

<p>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략사업부 김철중 선임(☎02-6103-921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참고

자배원-치안정책연구소 업무협약 사진

